

미래엔과 동아일보 교육법인이 함께하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www.m-teacher.co.kr
edu.donga.com

미래엔의 교수 활동 지원 플랫폼

MiraeN 센터

www.m-teacher.co.kr

함께 성장하는 스승과 제자

함께 성장하는 스승과 제자'는 제자들의 마음을 여는데 성공한 교사들의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지도 노하우를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모두에게 '달콤한' 교실 만들어요

※ 이 사례는 배영순 대구 울원중 상담교사의 사례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에 위치한 울원중에서는 상담교실인 'Wee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울원중 Wee클래스는 지역 내 경찰청, 장학재단, 사회복지관 등 다양한 기관과 힘을 합쳐 학생을 돕는 '위기 SOLUTION' 프로그램으로 유명합니다. 장학재단의 도움을 받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경찰청에 협조를 구해 범죄 위험이 높은 지역에 순찰차를 더 자주 파견하기도 하지요. 학생들의 문제는 사회의 변화가 동반돼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원중 Wee클래스만의 힘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이에 뒤지지 않습니다. 특히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달콤 클래스'와 '등갯길 학생맞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하루 중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오고 싶은 곳, 즐거운 곳으로 느끼게 됩니다.

또래관계, 둘러앉아 수다 떨며 회복

Wee클래스를 찾는 학생 중에는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많습니다. 어떤 학생은 교실에 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요. 그렇다고 Wee클래스에만 머물면 친구를 사귀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Wee클래스가 아닌 교실에서, 사회의 한 일원으로 흡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콤 클래스’는 학생들이 공동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돕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지만 친구관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만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급 전체 학생이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집단 상담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지요. 학생들에게 다양한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알려주고, Wee클래스에 방문하는 학생을 낙인찍는 것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달콤 클래스’에서 학생들은 무슨 말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상담교사의 적절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소외받는 것 같아 힘들다”고 털어놓으면 “참 힘들었겠다”고 공감해주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그 이유를 고민해보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와 같이 있으면 나도 소외당할까봐 두려워서 외면했다”고 고백하면 진심으로 사과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폭력이 아닌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는 법을 배웁니다.

등굣길이 즐거워야 하루가 즐겁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학교는 어떤 학교일까? 등굣길부터 신나는 학교가 아닐까?’

‘등굣길 학생맞이’ 프로그램은 이런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은 피곤하고 삭막한 마음으로 등굣길에 오릅니다. 하지만 일상을 시작하는 등굣길이 즐거워야 그 날 하루가 행복합니다.

이에 율원중에서는 인형 탈을 쓴 1·2명의 학생들이 등교하는 친구들을 맞습니다. 서로 안아주며 인사하기도 하고, 인형 탈을 쓴 친구들이 재밌는 춤을 추면 한 바탕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지요. 학생들은 “학교가 나를 반겨주는 것 같아 신난다” “등굣길이 즐거우니 하루가 덜 피곤하다”고 말하더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누구와 함께 등교하는지를 보며 외톨이 학생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어 상담교사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달콤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학교 연구모임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활발하게 활동 중인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소개하고, 이 활동이 학생 지도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를 알려드립니다.

경기 별내중 교사동아리 '소·나·무'

인성교육, 만들GO 실천하GO 나누GO



교사의 인성역량 강화를 위해 인성 관련 독서활동 중인 '소·나·무' 교사들. 별내중 제공

경기 별내중에는 15명의 교사가 모여 만든 동아리 '소·나·무'가 있다. 소·나·무에 소속된 교사들은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 △언어문화개선 토론회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대회 등 교사와 학생들의 인성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소·나·무란 이름도 사제가 소통과 나눔으로 함께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뜻. 소·나·무를 이끄는 이경복 별내중 국어 교사에게 동아리 활동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해 들어봤다.

인성 독서활동으로 교사부터 성장

소·나·무는 교사의 인성이 먼저 갖춰져야 진정한 인성교육이 가능하다고 여기고, 동아리 소속 교사 자신부터 인성과 관련된 책을 풍부하게 읽으며 인성역량 강화에 힘쓴다. 하지만 단순히 책을 읽기만 한 것은 아니다. 책을 읽은 뒤 △책의 주제와 내용 △기타 토론해볼 거리 △수업에 적용할 수 있는 점 등을 작성하고 이를 모아 자료집을 발간한 것. 동아리 소속교사들 뿐만 아니라 다른 교사들도 이 자료집을 활용해 스스로 인성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소·나·무 소속 교사들은 '인성교육문화자료집'도 제작했다. 이 자료집에는 감사, 배려, 존중 등에 대한 짧은 일화와 생각해 볼 거리가 함께 실렸다. 예를 들어 '감사' 부분에서는 도시락을 싸오지 못한 친구에게 밥을 나누어 준 학생의 일화와 함께 '친구나 부모님의 친절을 하찮게 여긴 적이 없는지 생각해보기'와 같은 생각해볼 거리를 담은 것. 이 교사는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통합형 자료집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교과-인성 융합 지도안’ 개발도 척척!

소·나·무 교사들은 학생들이 자연스레 인성교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교과수업에 녹여내는 것을 지향한다. 동아리 소속 교사 모두가 ‘교과-인성 융합 지도안’을 각각 개발한 것도 이런 이유.

국어 교과를 예로 들면 학생들이 ‘마음을 나누는 대화’ 단원을 배울 때 △언어습관을 반성하기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하고 △공감과 경청, 비폭력 대화에 대해 알아본 뒤 △역할극·포스터·손수제작물(UCC) 영상을 제작해보는 식.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역량’ ‘배려심’ ‘존중’을 배울 수 있다.

이 교사는 “소·나·무의 취지가 ‘나눔’인만큼, 지도안과 교육법 역시 보다 많은 교사들과 나누기 위해 타 학교 교사를 초청해 공개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배움에서 실천으로, 한 발 더 나아간다

인성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은 교사와 학생 모두 직접 실천해본다. ‘존중’과 ‘소통’에 대해 배운 뒤 그 가치를 ‘바른말 고운말 캠페인’으로 실현해보는 식. 학생들은 등교시간에 “나는 친구에게 욕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쓴 피켓을 들고 바른 말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소·나·무 교사들도 교정 나무에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등이 적힌 엽서를 걸며 고운 말 확산에 힘썼다.

보다 적극적인 학생 참여를 위해 ‘언어문화개선 토론회’도 개최했다. 학생들 스스로 교실에서 사용해선 안 될 금기어를 지정하고, 금기어를 사용했을 시 받을 벌칙까지 만들어 본 것. ‘학교폭력 예방 뮤지컬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대본을 쓰고 연기를 하며 우정의 가치를 몸으로 체득했다.

이 교사는 “소·나·무가 주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은 지루한 것’이라는 학생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iyeon@donga

※ 중학교 교사의 연구모임 혹은 동아리를 ‘자유학기제’에 자랑하고, 학생 지도 노하우를 공유해주세요. 자유학기제 편집팀 이메일(edudonga@donga.com)로 연락처와 사연을 보내주시면 담당기자가 전화를 드립니다.